지역 소식통

부안군, 영농철 콩 선별장 임대사업소서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본격적인 콩 수확기를 맞아 28일부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콩 선별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별도 종료시까지, 관내 주소지를 둔 콩재배 농업인이면 전화 또는 방문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콩에 한하며, 이용요금은 40㎏ 기준 2천원으로 관내 농협과 개인 시설보다는 30%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을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 편익을 높이기 위해 11월에는 본소를 대상으로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은 49종 396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이모작 및 마늘·양파 등 파종 작업과 과수의 수확·전지 작업 등 이외에 저비용 농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이후 첫 충무훈련… 비상 능력 점검

정읍시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시 비상대응 훈련인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전시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비 동원 계획을 시험해, 유사 시 시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첫날에는 전시종합상황실을 편성해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시작했다. 이 상황실을 통해 충무계획, 비축 물자 점검 등 정부 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충무 3대 기능 수행 역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임실군 소재 제35보병사단의 협조로 건설기계 동원 훈련이 진행된다. 굴착기, 불도저, 덤프 트럭 등 총 10대의 장비가 동원돼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한 실전형 훈련을 펼친다. 이와 같은 민관 협력 체계는 실제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 사랑과 역사, 시민과 만났다

정읍사문화제 · 제17회 평생학습축제 함께 열려 더욱 '풍성'

정읍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제35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정읍사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읍사에 담긴 백제가요와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는 자리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26일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도여인상 시상(설창임, 소성면)과 함께 경관조명 점등식,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7일에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과 지역 예술단 공연, 정읍사가요제가 이어지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전국에서 170여 명이 신청한 정읍사가요제는 지난 13일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실력을 겨루는 치열한 무대가 됐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를 부른 유소라 씨가 차지하며 시상금 300만원과 전북가수협회 인증서를 받았다.

축제장 일대에서는 퀸즈마칭밴드와 청춘취타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열린 제17회 평생학습축제에서는 27개의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문화제에 방문해주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정읍사문화제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제와 함께 정읍사공원에 조성된 야간 경관조명은 11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0회 정읍시민의 날,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읍시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을 비롯해 자매도시 관계자와 기관단체장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민들은 정읍의 발전을 축하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다.

행사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시민의 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화체육장에는 자수공예가 이정희 씨가, 애향봉사장에는 엘디마트 대표 안정남 씨가, 효행선행장에는 주부 김다복 씨가 선정돼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기념사에서 "정읍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며 "시민이 주인인 정읍,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조항조, 김태연, 별사랑, 김소유, 방서희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공연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품 인정… 약용작물연구회 농촌진흥청 우수상 영예

정읍 지황,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정읍 지황 생산단지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선정되며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약용작물연구회(회장 이광수)가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정읍 지황 생산단지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선정되며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선정 목적은 원예특작 국내육성품종 보급 사업 추진 우수단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우리 품종의 안정적 현장 확산에 기여하고,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이는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품종의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는 국내 육성품종 식재 비율, 품질 및 출하관리, 생산단지의 노력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대표 발표로 진행됐다.

약용작물연구회는 자체 판촉 및 전시회 개최 실적, 지역 축제 및 정례회의 참여, 다수의 수상 경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70년 이상 고창군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신 306명에게 뜻깊은 증서가 수여됐다.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

고창군, 고향사랑 실천해 온 306명에 증서 수여

70년 이상 고창군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신 306명에게 뜻깊은 증서가 수여됐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뿌리고창인 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군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뿌리고창인 증서를 수상한 성송면의 홍성천씨는 "70여년을 사며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내 고향, 고창을 사랑하고,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이다. 심덕섭 군수는 취임 최우선 강조사항으로 "평생을 고창에 터 잡고 살아오시며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유산을 소중하게 지켜오신 군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등 외지 인구 유입책과 맞물려 고창에서 나고 자란 군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 뿌리고창인 신청을 받아 총 374건 접수를 받았으며, '2024년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령, 주소지 전,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여, 306명에 대한 뿌리고창인 선정 심의·의결하였다.

선정된 뿌리고창인에게는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매월 60L 한도), 람사르 운곡습지 및 선운산 유스호스텔 사용료 50% 감면 등 13개의 우대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랜 시간 동안 고창을 지켜오시며,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뿌리고창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농촌 크리에이투어 참여자 500여명 돌파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계를 품은 힐링성지, 고창' 농촌관광 상품 참여자가 500여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자연유산 고창갯벌, 인류무형유산 판소리 등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한 관광명소다.

경쟁력 있는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과 판매로 관광객 및 농촌 소득 증가 등 큰 효과를 얻으면서 농촌관광산업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대표 관광지인 선운산, 고창읍성, 구시포 해수욕장, 운곡습지 등을 방문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토굴발효, 쉼드림 등 농촌 관광 경영체에서 색다른 농촌 체험을 즐기고 있다.

고창군의 문화·체험·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되며, 10월 현재까지 25회에 걸쳐 500여명이 이 상품을 이용하여 고창군을 방문했으며, 참여자 설문 결과 92% 이상 만족한다고 답해 농촌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객들이 고창에서 다양한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 간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농촌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